

가을의 시작을 알리다 <황수미의 사운드트랙>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서울】성악가 황수미(성악)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건 마티네(평일 오전에 열리는 공연) 시리즈를 18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아침의 설렘과 함께 막을 올렸다.

롯데월드 타워 안에 자리한 공연장은 잠실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돼 이동이 편리했고, 공연 전후로는 내부 카페와 음식점, 쇼핑몰 등을 함께 즐기며 하루 일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관람객 대다수가 일찍 도착해 차를 마시거나 사진을 찍으며 평일 오전을 만끽하며 공연을 기다렸다. 일상적인 출근길 인파와 달리, 공연장을 찾은 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중장년층 관객이 주를 이뤘고, 출연진의 제자들도 꽃다발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

객석에 들어서자 홀 내부를 둘러싼 빈야드(부채꼴 형태) 구조의 웅장함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를 중심으로 둘러싼 1층부터 3층까지의 객석은 빼곡하게 차 있었고, 특히 1만 원으로 마련된 '마티네석'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조명이 꺼지고 황 교수가 무대에 등장하



'황수미의 사운드트랙'은 황 교수가 이름을 내건 첫 기획 공연이다. 왼쪽부터 피아니스트 안종도, 테너 김우경, 황 교수. (사진=조한음 기자)

자, 웅성임은 사라지고, 객석은 숨을 고른 듯 고요해졌다. 무대 한가운데 선 황 교수의 첫인사에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관객과 떨림을 나누며 차분하게 진행을 이끌어 갔다. 그는 "아침 시간대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다"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첫 무대는 예술가곡의 근원으로 불리는 독일 가곡이었다. 로베르트

슈만의 '헌정'은 테너 김우경이 열창했고, 클라라 슈만의 '나는 어두운 꿈 속에서 있었네'는 황 교수가 직접 불러 무대를 이어갔다. 두 곡 모두 연인의 사랑을 주제로, 슈만 부부의 서정적이고 섬세한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따뜻하면서도 밀도 있는 목소리는 오전 시간대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

덕이거나,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이들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했다. 마치 향긋한 모닝커피 향을 오래도록 음미하듯, 흘러나오는 곡의 여운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객석은 터져 나오는 박수로 화답했고, 몇몇은 작게 "브라보"를 외치며 감탄을 전했다.

출연진과 관객을 연결하는 대화 시간도 있었다. 황 교수는 평소 즐

겨 듣는 음악을 묻는 등 소소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갔다. 김우경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종도는 "퇴근 후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는 솔직함으로 객석에 웃음을 안겼다.

관객들의 표정에서도 만족감이 묻어났다. 이혜린(성악 2024) 씨는 등교 전 무대를 찾았다. 그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 같았다"며 "마티네 공연으로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지은 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휴가를 냈다. "저녁 공연에 비해 여유로운 분위기여서 편안했다"며, "특히 황수미 소프라노와 러시아 가곡의 조화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공연장을 빠져나온 관객들은 인증사진을 남기며 즐거움을 기록했고, 무대 위 출연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했다.

황 교수의 첫 기획 공연이기도 한 <황수미의 사운드트랙>은 오는 10월 16일과 11월 20일, 총 두 차례의 추가 공연이 예정돼 있다. 공연은 매회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며, 인터미션 없이 약 70분간 이어진다.

'학문으로 여는 평화로운 세계'의 문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③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

건축에서 '문'이란 하나의 공간적 영역을 이루는 경계와 그 영역에 이르기 위한 통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문은 독립적인 구조물이라기보다 담이나 벽 같은 경계 요소와 공존할 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학 국제캠퍼스 정문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우선 디자인이 남다르다. 폭 62미터, 최고 높이 22.5미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화강석으로 마감된 문은 모두 16개의 돌기둥으로 돼 있고, 곳곳에 배치된 조형물들이 건축미를 돋보이게 한다.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아이디어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김동찬 교수의 설계로 완성된 이 문에는 다양한 상징이 곳곳에 숨어있다.

정문 중앙부 상단에 있는 7명의 남녀 군상은 진취성과 선도성, 탐구와 평화를 상징하고, 홀로 앉은 남성상이 들고 있는 석판과 천정은 학문의 수호와 정의를 상징한다. 여성상은 나무와 심장을 들고 있는데, 이는 생명과 양심을 뜻한다. 태양계를 돌고 있는 정문 양 끝의 4인 남녀 군상은 학문 탐구,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취적 기상을 상징한다. 문을 이루는 기둥의 측면에는 20명의 사람이 부조로 조각돼 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여신상을 중심으로, 남녀 군상들은 각각 협동과 어울림, 학문의 성취와 기쁨을 뜻한다. 아치형의 좌우 익랑(翼廊) 천장을 올려다보면 목련이 보인다. 이 목련은 꽃봉오리부터 만개한 모습까지 다섯 단계로 표현돼 있는데, 발전하는 경희인을 상징한다.

이름도 독특하다. 정식 명칭은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 캠퍼스 출입문인 동시에 탑이다. 정문 중앙 이맛돌을 올려다보면, 'NEO RENAISSANC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네오르네상스'는 교육자이면서 평화운동가였던 설립자가 주창한 실천 운동의 명칭이다. 그는 20세기 인류 문명이 낳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 인간 부재라는 실존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세 말 정신문명의 한계점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성을 되찾자'라고 외치며 르네상스 운동에 나섰던 것처럼, 오늘 인류가 또다시 직면한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제2의 르네상스 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지구공동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 네오르네상스 운동이다.

새천년 초입, 2001년 9월 28일 개최된 정문 준공식에서 설립자는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인류 화합과 평화의 바탕 위에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① 2001년 9월 준공된 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 전경 ② 정문 조각상에는 다양한 상징이 숨어있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새천년 기념탑-네오르네상스 문'을 통해 세상의 새롭고 깊은 학문과 사상이 우리를 향해 들어오고, '학문을 통한 평화'라는 경희의 이

상이 세계를 향해,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뻗어나가길 바라는 염원이 국제캠퍼스 정문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